

“한국의 원불교와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평

안 준 언

(영산원불교대학)

이성전 교수의 연구 발표문은 원불교의 사회사상을 일원상 진리와 연결하고 교조와 2대 종법사의 중심사상을 통해 실질적인 성격을 규정한뒤에 네단계의 시대구분으로 원불교의 사회적 활동사향을 구체적이고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서 원불교의 사회학적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이성전 교수는 일원의 진리와 사회와의 관계성을 정리하면서 “인간사회는 사운의 상호관계를 통해 생성되고 유지된다는 점” “인간사회는 일원의 진리가 펼쳐지는 장이고 진리실현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아주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만 개념정의를 했다.

아쉽다면 사회라는 개념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불교에서는 그 사회에 대한 실체적인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조금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에는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의 문제를 따라 접근해야된다는 사회실재론(Social realism)적인 관점과 개인적 문제를 따라 접근해야 된다는 사회명목론(Social nominalism)적인 관점이 있는데 원불교의 사회접근의 이론적 입장은 어떠한쪽에 가까운 것인지?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일련의 사회적 현상이 개인적 행위로 결정되기 보다는 구

조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따라서 사회실재론적인 입장의 해석 가능성에 대해 보다 더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실재론적 입장에서의 소태산대종사의 사회접근 논리는 어떤 것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는 종교가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려면 그 어떤일보다도 먼저 종교간에 대화와 협력의 울이 터지고 또다른 배타와 불신의 늪을 넘어서 한가지 궁극적 의미를 향해 슬기롭게 공존할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성전 교수도 지적했듯이 원불교의 사회적 기능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운동에 적극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세상에서 유래없는 다종교공존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만일 제종교들간에 긍정적인 의미의 통합력이 발휘되지 못한다면 한국사회를 엄청난 불행한 상황으로 몰고가는 역기능이 발생할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종교간의 대화, 협력을 증진 시키는 문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라 여겨진다.

판니카나, 존 힉 등과 같은 학자들이 말한 타종교에 대한 종교의 태도 유형에는 배타주의(exclusivism), 포괄주의(inclusivism), 다원주의(pluralism)가 있다.원불교도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포괄주의적인 입장도 고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 논리적으로는 다원주의와 포괄주의는 상호모순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내적으로는 포괄주의적 경향이 분명히, 두렵하게 상존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다원주의를 주장한다면 원불교의 종교간 대화.협력운동이 큰 설득력을 확보할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따라서 포괄주의를 넘어서면서도 원론적인 다원주의 운동이 의미대로, 객관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살려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